

지형을 끓는 물에 넣는 모습



지형을 연판 틀에 맞추는 모습



연판틀에 납을 붓는 모습

# 역사 속으로 묻혀지는 활판인쇄

활판인쇄(typographic printing)는 글자 인쇄를 위주로 하는 블록판식 인쇄의 일종으로 본래는 활자로 짜여진 판을 기계에 걸어 인쇄하는 원판인쇄(原版印刷) 기술이었지만, 연판(鉛版)·전주판(電鑄版)·선화블록판(線畫凸版) 등 각종 복제판(複製版)이 발명되면서부터는 이들 각 판에 의한 인쇄도 모두 활판인쇄라 한다.

활판은 활자를 짜서 만드는 판으로 정정이나 변경을 하기 쉽고 또 사용하였던 활자와 그 밖의 재료를 되풀이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종전에는 신문, 서적, 잡지 등과 같은 것은 대부분 활판을 사용하였으므로 블록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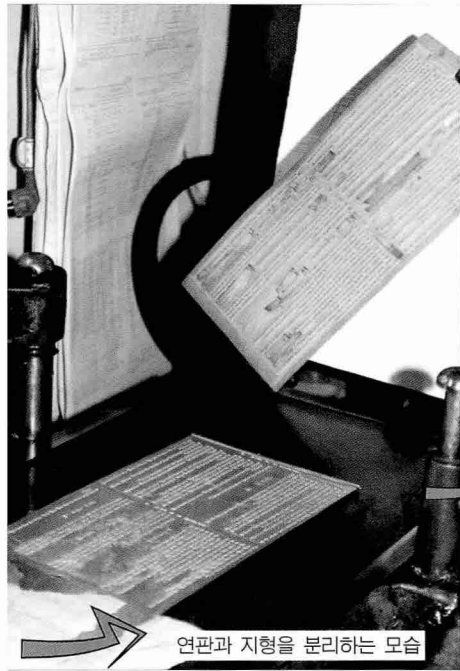
지금은 일반적으로 지형을 만들어 연판을 떠서 인쇄한 것을 활판인쇄라고 한다.

활판인쇄에 사용되는 활자는 금속활자를 처음으로 발명한 때부터 오늘날까지 큰 변화가 없으며 활자 재료는 납(연)합금이 가장 사용하기 쉽고, 또 간단하게 다시 조판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최근 오프셋 인쇄 등 선진 시설이 대량 도입되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활판인쇄는 역사 속으로 묻혀지고 있다.

활판인쇄술의 발명에 관해서는 구텐베르크보다 조금 더 앞서서 네덜란드의 코스타가 발명해 구텐베르크가 도용했다는 설도 있지만 활판인쇄의 세 가지 요소를 고안해낸 것은 설사 아이디어를 코스타에게 얻었다고 하더라도



연판틀을 여는 모습



라도 불굴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활판인쇄가 널리 알려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인쇄술로 이어지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고안해냈다는 데 있다. 겨우 30자 안팎의 활자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알파벳이 수만 자도 넘는 중국의 한자보다 유리하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시대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구텐베르크의 시대는 새로운 문화와 사상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활발히 일어난 르네상스기였으며 오랫동안 카톨릭에 대한 비판이 누적되어 종교개혁이라는 격동의 시대가 임박해 신앙의 문제가 일부 성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일반 민중들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민중들이 성서를 널리 찾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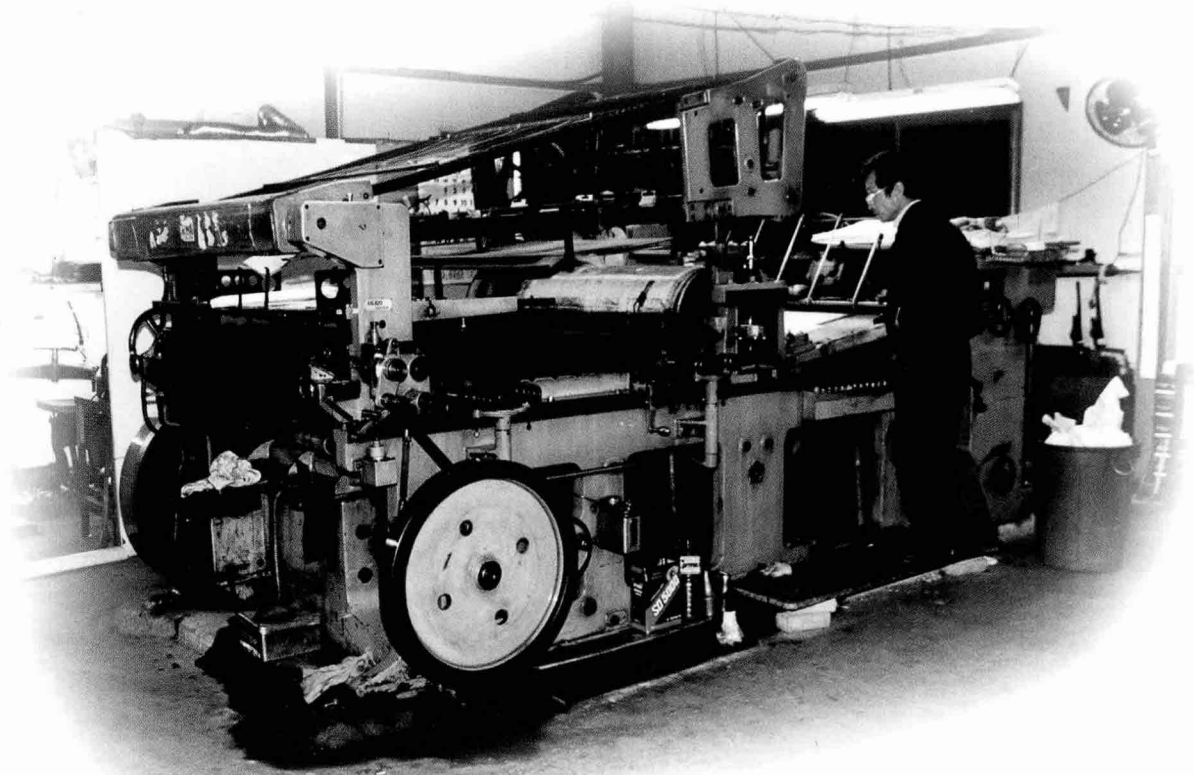
독일어판 성서의 출판에서도 볼 수 있듯 라틴어로 쓰인 루터의 성서가 이때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구텐베르크 시대의 유럽은 잠재적으로 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필승이 살았던 송대의 중국이나 고려 시대의 한국에서 책은 관리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특권계급의 것이었고, 불경도 승려들의 독점물이었다. 책은 수십 권에 서 많아야 수백 권 정도가 만들어지는 데 불과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쇄물에 대한 수요가 적어 대량생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하여 모처럼의 귀중한 발명이 그 후에 계승되지 못한 것이다.

### 국내에서는 조선신보가 납활자 최초로 사용

우리나라에 근대식 납활자와 활판 인쇄술이 처음으로 상륙한 것은 1881년 12월 10일 부산에서 창간된 조선신보를 기점으로 한다. 이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의 상인단체인 재부산항상법회의소의 기관지로 발행된 것인데, 10일 간격으로 낸 정기 간행물이었다.

조선신보는 발간주체가 비록 일본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납활자를 최초로 사용한 인쇄물이었다. 그러나 단지 일본인에 의해 일본 거류민을 대상으로 인쇄 반포된 인쇄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전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민족에 의해 직접 수입된 근대식 납활자와 활판인쇄술은 1883년 7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따르는 신문이나 서책들을 출판하기 위하여 통리아문 관하에 최초의 근대식 인쇄소인 박문국을 설치하고 동년 10월 1일



한성순보를 발간하면서부터이다.

박문국이 설치되어 한성순보를 발간하기 시작한 이듬해에는 광인사인쇄공사가 설립되어 서책들을 인쇄해 내기 시작했다. 광인사는 원래 목활자로 인쇄를 하던 반관반민의 재래식 인쇄사였으나 일본에서 활판 인쇄기와 납활자를 도입하여 서양식 인쇄시설을 갖추고 1884년 2월에 합자회사 형태로 새롭게 출범했다.

광인사는 최초의 근대식 민간 인쇄업체이지만 당시에는 인쇄와 출판이 명확히 분리된 개념이 아니었기에 인쇄와 출판을 함께 겸하고 있었다. 따라서 광인사는 활판 인쇄술의 보급에 기여했음은 물론 한글 활자까지 완비하고 최초의 국한문 혼용 책자 등을 다수 발간했다는 점에서도 인쇄출판문화사적 의의가 크다.

근대 활판 인쇄술의 보급과 발달은 각 종교의 선교단체들이 운영한 인쇄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천주교의 성서활판소, 개신교의 배재학당인쇄소, 안식일교의 시조사인쇄소, 천도교의 보성사인쇄소 등은 각각 설립 년도는 다르지만 활판 인쇄술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이 무렵에 간행된 천주교와 기독교 서적들은 당시의 조선 사회에 매우 이질적인 수단이었지만, 이를 당한 당대인들에 있어서는 서구 세계와 그 가치관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 유형의 선교책자 제작과 보급이 실현됨으로써 인쇄출판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국내에 도입된 납활자와 근대식 활판 인쇄술은 그 편리성과 효용성이 알려지면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납활자를 이용한 인쇄방식은 종래의 수공업적인 수동식 인쇄기구에 의한 것과는 달리 기계화가 된 것이며, 재래식 활자로써 주로 한자 인쇄물을 발행하고 있을 때 납활자로 찍은 인쇄물은 국한문을 혼용하거나 순 한글만을 사용하여 인쇄한 것이 이 무렵 인쇄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 오프셋인쇄에 밀려난 활판인쇄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 된 활판인쇄기술은 우리나라 인쇄산업을 크게 중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첨단 지식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활판인쇄의 특성은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뛰어난 가독성에 있다. 이런 연유로 활판 인쇄물은 그동안 국민들과 친근한 인쇄기술로서 자리를 지켜왔고, 정부의 각종 기록문서들이 활판인쇄로 만들어진 후 보관되어 왔다.

그러나 이처럼 인쇄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활판인쇄도 오프셋인쇄기와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1970년대를 전후하여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제작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이었다.



침단화된 현대의 인쇄기술이 전통 인쇄술의 영역을 잠식한 것이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10여 곳의 활판인쇄업체들이 생산을 해 왔으나 2천 년대에 이르러서는 2~3개 업체에서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업체도 물량이 계속 감소해 곧 문을 닫을 입장에 놓여 있다. 활판인쇄술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기록·보존하는 기술인 관계로 그 맥이 이어져야 하는데도 발주자의 외면과 관련기관의 무관심 때문에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제작한 우리나라가 전통 인쇄술인 활판인쇄 기술을 보존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아직도 50여 곳의 활판인쇄업체가 정부와 각계의 관심과 지원으로 성업 중에 있다고 한다. 사라진 다음에 다시 복원하기란 명맥을 유지시켜 주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인 활자 인쇄술의 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보존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 인쇄단체에서는 지난 1995년 1월 당시 문화체육부에 「활판인쇄물 제작 및 인쇄술 보존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의서 내용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인쇄문화의 발원지이고 인쇄문화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마땅히 계승, 발전시켜야 할 선조들의 빛나는 업적임에도 현대의 인쇄기술이 갈수록 침단, 다양화돼 활판인쇄 기술이 사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쇄업체가 활판인쇄를 보존코자 해도 발주자들이 제작경비가 조금 더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 활판인쇄물 수요량이 급격히 줄어 그 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으므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체육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서적류 제작 시 활판인쇄 방식을 활용하고 정부차원에서 관심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활판인쇄기술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기록 보존하는 기술로써 각종 무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후손에게 전승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재호부장〉